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한국판 다보스 포럼 본격 항해길 나섰다

제2회 '지니포럼' 조직위 가동... 도·전주시·국민연금 등 협업 30일 국제금융 컨퍼런스와 5개 연계행사로 온·오프라인 개최

한국판 다보스 포럼인 '지니포럼(GENE Forum)'이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 항해에 나선다. '지니포럼'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세계 경제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간담회다. 지니포럼은 그간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했던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모체로 확대 개편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주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으로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주관기관 협의체는 '제2회 지니포럼'을 세계적인 국제 금융행사 자리 매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 공공 분야를 망라해 탄탄한 저명인사로 국제조직위원회를 꾸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기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대내·외 협력체계를 갖췄다.

조직위는 당초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송

하진 도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의 비대면 출범식 홍보영상으로 대체했다.

올해 2회차인 지니포럼은 '사회적 가치복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세계 경제시장에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30일부터 2일간 10개 기관이 참여해 주행사인 국제금융 컨퍼런스와 5개의 연계행사로 이뤄진다.

특히, 국제금융 컨퍼런스에는 공동번영을 위한 이머징 마켓투자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속 세계 경제와 이머징 마켓투자 등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의 세션별 토론을 진행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제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환경 세미나, Better Together Talk, 스토리지 데모데이, 전북 투자 데모데이, 전주 금융발전 포럼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 경제 방향과 전북도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많은 분들이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지니포럼은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월드캡처오픈코피아, (재)기후변화센터, (사)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사)한국증권화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가 후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지역내 원격교육기관과 평생교육원의 재학생과 졸업생,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9일 오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평생학습 진흥·직업교육 활성화 실현 염원'

도내 평생학습인들,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전북지역내 원격교육기관과 평생교육원의 재학생과 졸업생,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등 3,535명이 9일 오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평생학습네트워크(상임대표 신효균)의 지지선언에는 전북지역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교육원, 어린이집,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센터,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원, 문화이카데미, 예술교육단, 공예교육기관의 평생학습자와 교수·교사·교육운영진 그리고 학부모·후원자 등이 연대해 참여했다.

평생학습인들은 지지선언문에서

"한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년공 출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학업에 정진해온 이재명 후보가 평생교육을 확실하게 육성하고 진흥시켜줄 최적임 대선후보다. 평생학습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 이재명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좀더 진취적인 평생학습권 실현과 직업교육활성화 측면에서도 탁월한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영유아보육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학점은

현재 해외시장 개방의 문호를 넓혀 국익 신장을 도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 열린 학습사회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향상시켜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선언 현장에는 양동식 한국방송통신대 전북지역대학 34대 총학생회장, 한예현 비전원격평생교육원 대표, 이은희 완주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영역별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자들과 함께, 열린캠프 국민소통본부 차세대 본부장과 전북본부 이남호 수석상임본부장, 오우석 한국안미술가협회 전북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곰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됐다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 생산 해수부로부터 가치 인정받아



전북도가 도내 최초로 '곰소 천일염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지정해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9개의 어업 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곰소 천일염업'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일염지다.

특히,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소금 특유의 쓴맛이 적고 단맛이 나며, 염전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곰소만 갯벌에 오래 머물러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번 평가에서 곰소 천일염업은 전통 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됐다.

선정평가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 3단계 검증을 거쳤으며, 그 결과 '곰소 천일염업'이 전통 방식의 생산성, 주

변 생물·식품 다양성 역사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3년간 7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는 유산지원 기초조사, 곰소 천일염업 유지·관리 및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과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어촌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도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최근 노을대교 기체부 예타 통과로 인해 곰소염전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도내 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 전통어업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보조금 한도 80억원으로 상향'... 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북도내 투자유치 큰 성과로 이어져

전북도의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기업들의 도내 투자유치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올해 8월 말 기준 쿠광(주), 에너비배터리솔루션(주), 일진하이솔루스(주) 등 총 6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해 확대된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전방위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쿠광(주) (주)전비엘에스 두산퓨얼셀(주), 일진하이솔루스(주), 에너비배

터리솔루션(주) 등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과 더불어, 다양한 강소기업들의 신·증설 투자가 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북도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도의 주력산업 분야 기업유치 성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 성과는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기존기업 신증설 투자 시 지원업종 제한 폐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 인센티브 강화 전략을 마련, 기업들의 신·증설 투자를 이끌 어냈다.

도는 9월 중에 에이치더티(의료기기), 리플라스코리아(합금철), 몰드(자동차 부품), 수한이엔지(정보통신), 시지트론(반도체 소재) 등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강소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토 일요일 신문 쉽니다